3강. 도시를 빛내고 문화를 알리는 건축을 발견하다

세계 여러 나라의 도시를 빛내고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세계적인 건축물을 들여다본다. 시청사, 박물관, 미술관, 문화센터, 기념관 등 한 나라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있는 다양한 건축을 만나본다.

■ Sydney Opera House, Sydney, Australia, 1959~1973, 요른 웃존

- 가장 유명하고 인상적인 20세기의 건축물,
  1992년 영국의 <더 타임스> 선정한 현대의 7대 불가사의 건물
  200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
- 수평선위에서 피어오르는 구름 상승이미지, 날개 짓 하며 비상하는 도둑괭이 갈매기 이미지
- 아룹(Arup) 시공담당, 지붕 건립위해 1957년~61년까지 350,000 시간 지붕 공사만 1천 2백만 달러 소요
- 쉘(shell) 구조의 대담한 디자인, 건물 길이 183m, 가장 넓은 너비 120m, 제일 높은 쉘 68m,초기 디자인은 5cm두께의 셸, 구조프레임 없이 자체로 거대한 중력과 바람을 지탱

■ Centre Pompidou, 프랑스 파리, 1971~1977, 리처드 로저스+렌조 피아노

- 건축의 핵심을 이해하도록 설계, 첨단소재와 기술공학적 하이테크건축
  "인간은 도시를 만들고, 도시는 인간을 빚는다"
- 건축 고정관념을 깨다! 건물 내부에 들어가던 설비들이 건물 바깥으로 노출되는 하이테크. 건축 고정관념을 깨다!
- 흰색 : 구조체와 공기 공급 파이프, 붉은색 : 운송 수단(계단, 에스컬레이터) 노랑색 : 전기 배선 / 녹색 : 수도관 / 파랑색 : 공기 조화 시스템

■ 사그라다 파밀리아, 스페인 바르셀로나, 1882년~공사중, 안토니오 가우디

- '신이 지상에 머물 유일한 거처' '미완성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'
- '자연에는 직선이 존재하지 않는다' 는 괴테 자연론의 영향
- 너비 150M, 높이 170M, 그리스도의 탄생과 수난,영광을 주제로 한 조각 믿음,소망,사랑을 주제로 한 파사드, 12제자를 상징하는 첨탑,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중앙탑으로 구성
- 나무, 하늘, 구름, 바람, 식물, 곤충 등 자연을 관찰하여 건축에 응용
- "아무리 아름다운 돔이라도 해골의 내부에 비할 수 없고, 산이 가진 완벽한 안정성을 따라갈 건물은 없다"

■ 요나스 소크 생물학 연구소, 미국 캘리포니아,1959~1965년, 루이스 이사도레 칸

- 백신 발명가인 요나스 소크 박사, '생각하는 단위공간(thinking cell)'
- 태평양에 면한 절벽 위 블랙비치 언덕 위치, 학자들을 위한 '수도승의 방'

- ‘생각하는 단위공간’ 을 넷씩 모아 가운데 광장 좌우로 병렬한 두 오픈 블록을 하늘로 열린 광장과 마주서게 설계

■ 방글라데시 국회의사당,방글라데시 다카, 1962~1974년, 루이스 이사도레 칸

- 총면적은 20에이커, 호수, 잔디밭, 국회의원 주거지로 구성
  인간에 대한 따뜻한 애정과 존경, 다카인들의 이상세계라는 자부심
- 콘크리트와 대리석을 잘 조화시킨 건물로 최고의 작품, “풍경을 만든 건축가”
- 8각으로 된 국회회의장을 포함한 내부 실내장식은 신비한 몽환적 세계를 연출하는 이탈리아 건축가 피라네시(Piranesi) 스타일에서 영향

■ 훈데르트바서 하우스,오스트리아 비엔나,1983~1986, 프리덴슈라이히 훈데르트바서

- 스킨(skin)론 / 인간을 보호하는 5개의 층/
  진짜 피부/입고 있는 의복/살고 있는 집/사회/지구(환경)
- 인간은 첫번째 피부만 의식하고 나머진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.
  우리를 보호해주는 “제 3의 피부가 집”이라고 주장한 그는 건물을 세우며 빼앗은 식물의 공간을 다시 되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
- 자연주의 사상/ 직선을 배척하고 곡선을 옹호하는 그의 미술관
  신체, 생물, 물질의 유기적 순환을 강조

■ 베를린 유대인 박물관,1989~2001,다니엘 리벤스킨트

- “어떻게 건축적 공간이 기념관에서 얻게 될 역사적 인식을 줄 수 있는가?”
- “건물은 콘크리트와 철, 유리로 지어지나 실제로는 사람들의 가슴과 영혼으로 지어진다 “
- 2000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· 유대인 역사, 예술 수집품, 역사적 기록에 대한 상설 전시,유대인 역사와 문화에 대한 특별 전시장소
- 유대인의 상징인 ‘다비드의 별’ 형상의 평면형태, 아홉 번 구부러진 각, 지그재그 라인은 찌그러진 다비드의 별 상징

■ 홀로코스트 추모비,독일 베를린,2005,피터 아이젠만

- 나치에 의해 학살된 유럽 내 6백만 유대인 희생자들을 기리는 장소
  1만9천㎡를 도미노를 연상시키는 빼곡히 들어선 콘크리트 석주, 경사진 바닥
- 특별한 의미가 없는 총 2,711개의 콘크리트 입상, 입체 사이 95㎝,
  각각 0.5도에서 2도 사이의 경사 기울어져, 15㎝정도
- 112개 4.7미터, 1미터 미만 367개, 1~2미터 869개, 2~3미터 491개,
  3~4미터 56개, 4미터 이상 303개,가장 무거운 입체는 11톤
- “이 곳이 단지 강제 학살된 유대인 추모의 공간이기에 앞서 후세대들의 공동생활을 위한 또 다른 하나의 새로운 공간으로 받아들여지길 희망한다 “

강영란/ kyr824@hanmail.net / 010-6391-8283
http://blog.daum.net/kyr824